

화순군, '수산물식품산업 거점단지' 운영 협약체결

(주)청우F&B(대표 장영진)·(주)화순수림맛굴비(대표 최주승)

지역 특색에 맞는 수산물식품 개발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화순군은 수산물식품산업 거점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청우F&B(대표 장영진), (주)화순수림맛굴비(대표 최주승)와 운영협약 및 임대계약 체결을 맺었다.

수산물식품산업 거점단지는 해양수산부 주관 '2016년 수산물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70억 원을 지원받아 조성하였으며, 수산물식품을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연구시설 1개 동과 수산물식품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시설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청우F&B는 연구시설 운영협약을 통하여 수산물식품 연구개발 및 정부의 수산물 R&D

공모를 수행할 예정이며, 가공시설은 두 업체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수산물식품 가공 및 상품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운영협약 및 임대계약을 통해 지역 내 수산자원 및 농산물을 활용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고부가 수산물식품을 개발 및 가공, 상품화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주)청우F&B와 (주)화순수림맛굴비 두 업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우리군 특색에 맞는 수산물식품을 개발 및 상품화



를 통해 우리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거점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지역경제 활력 UP' 나주시, 수의계약 낙찰률 3% 상향

나주시가 건설공사 등의 수의계약 낙찰률을 높여 지역업체 경영 활성화를 도모한다.

나주시는 4월 24일부터 2000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낙찰률을 3% 상향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기에 공사, 용역, 물품별 상이했던 낙찰률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소비심리 위축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로 지역업체의 실질적 지원은 높이고 부담을 완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공사·용역·물품 낙찰률은 98%, 500~1000만원은 96%, 1000~1500만원은 94%, 1500~2000만원은 93%의 낙찰률을 각각 보장받게 된다.

2000만원 시한 공사를 계약할 경우 계약금액이 현행 1780만원에서 변경 후 1860만원으로 80만원이 오른다.

2000만원 이하 전체 수의계약 중 95% 이상이 지역업체로 선정되고 있어 낙찰률 상향을 통해 연간 16억원 규모 예산이 시중에 풀리면서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는 이와 함께 1000만원 이상 관공공사, 물품, 용역의 계약보증금도 현행 7.5%에서 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계약보증금 특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낙찰률 상향과 함께 지역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나주=송준표기자

곡성군, 쌀 가공업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 선정

곡성군이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2023년 쌀 가공업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전라남도 쌀 가공 생산 및 유통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은, 1개 이상의 쌀 가공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쌀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를 통해 쌀 가공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받은 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류평가에서 10개소, 2차 현장평가를 통해 8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곡성군은 '섬진강살로 만이 이야기'를 선정했다.

만이야기, '쌀맛나게' 2개소의 컨소시엄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섬진강살로만이야기'는 농업회사법인 (주)조정과 농업회사법인 (주)미실란이 함께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이 컨소시엄에서는 유기농 쌀을 활용한 쌀쌀, 쌀음료 등 간편식과 디저트를 개발한다.

'쌀맛나게'는 농업회사법인 시향(주), 그린농산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곡성남만공방협동조합이 함께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가루쌀을 이용한 로컬 쌀막걸리, 증류주와 같은 지역 특산주, 그리고 막걸리 키트와 같은 체험 및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곡성=양해영기자



담양군, 대나무·딸기 활용 특색있는 주류 개발

대나무 막걸리·딸기 와인 개발... '2023 new bamboo festival' 기간 시음 행사

담양군이 대표 특산물인 대나무와 딸기를 이용해 전 연령을 아우르는 주류를 개발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담양군의 대표적인 상징인 대나무와 딸기를 소재로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주류를 개발하고 있으며, 대나무 막걸리, 딸기 와인, 딸기 스파클링 와인, 과하주 등 4종의 술을 상품화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술 기념품 제작과 지역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술과 어울리는 음식 메뉴 개발(콜라보 안주), 지역 청장년 창업 연계 사업 모델 발굴 등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목표로 사업을 다각화해 추진 중이다.

최근 군은 주류 개발 관련 사업 성과 평가를 위해 해동문화예술촌에서 이병노 군수, 최용만 담양군의회 및 의원, 청년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음평가회를 진행했다.

시음 평가 결과 청년세대들에게는 대나무를 베이스로 한 딸기와인과 딸기스파클링 와인인이 호평을, 중장년층으로부터는 대나무막걸리가 호평을 받았으며, 여름을 나기 위해 먹는 과하주는 두루 좋은 평을 받았다.

군은 앞으로 '2023 new bamboo festival' 기간 5월 5일과 6일, 관광객을 대상으로 2차 시음회를 추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자 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외국의 경우 주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농업과 외식업, 관광업과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있다"며 "우리 담양을 대표하는 대나무와 딸기를 활용한 전통주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 설치

구례군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등산로와 산책로 5개소에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사기 설치 장소는 대나무 숲길, 오산 등산로, 봉성산 공원 산책로, 화엄사 주차장, 피아골 등산로 입구이다.

기존 기피제 보관함은 공간이 협소하고, 기피제의 분실이 잦아 다수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았다. 특히, 수목이 우거진 곳의 기피제 보관함은 잘 보이지 않아 사용률이 낮았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기존 기피제 보관함을 절거하고 자동 분사기를 설치했다. 자동분사기는 버튼을 누르고 손잡이를 당기면 팔과 다리 등 필요한 곳에 힘들

이지 않고 10초 동안 약품을 고르게 분사할 수 있다.

김현진 구례군보건소장은 "4~11월은 야생 진드기 유충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로 야외 활동 및 농작업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구례=박전호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안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마일 포스코A&C